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비교를 중심으로 -

현홍준* · 서용건** · 고계성***

<차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유산
 - 2. 해녀
 - 3. 관광자원화
 - 4. 관광영향 인식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 측정척도의 평가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라져가는 제주지역의 해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느끼고 있는 선택속성 인식 및 관광자원화가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조사하고 원형 보존과 가치성을 모색하여 제주해녀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과의 공생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보존 방향 모색에 연구목적 을 두고 있다. 본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박사수료, hongjun2@jejunu.ac.kr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yong@jejunu.ac.kr
***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wegotravel@kyungnam.ac.kr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에서는 문화유산관광, 관광상품화 영향인식과 관광정책적 접근방향에 대한 연구의 표본과 연구목적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과 빈도분석,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공받고자 기술분석, t-test, ANOVA,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제주해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해녀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 “희소성 가치가 높다”가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 “지방적이다”, “해녀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보존가치가 높다”, “계승할 필요가 있다” 조사되었다.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코드, 보존을 통한 가치성 지속 등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추후 제주해녀를 보존, 보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찾아나가야 하며, 해녀에 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인식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제주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문화유산, 선택속성, 유네스코(UNESCO), 해녀, 관광자원화, 관광영향인식

I. 서론

관광자원화는 사물과 활동이 지니고 있는 관광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또는 일정한 변경을 통하여 관광잠재력을 지닌 사물과 활동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으로 나누어 관광자원에 내재한 가치를 구현시키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박석희·이미혜, 1996).

문화유산관광은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물질문명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점차 대중 속에 고립화되

는 현대인의 인간성 회복과 정신적 가치와 진리의 추구를 위한 현대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장세분화의 지표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문화집단의 문화적 역량을 기증할 수 있는 척도인 동시에 그들의 문화자본이기도 하며 이들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통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진리 추구활동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공동의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전명숙, 2005).

그러나 제주도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해녀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전통문화방식의 생활과 점점 멀어지고 서구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전통생활 방식에 의거하여 존재하였던 문화유산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이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고 또 확인, 보존, 그리고 전승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많은 기획을 해오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2004.4.19)와 뉴욕타임스(2005.2.15)가 제주의 해녀를 각각 섬 문명의 보물(island possession), 한반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양성평등의 선구자(pioneer modern Korean gender role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로 이대로 방치하면 해녀와 해녀의 희귀한 가치와 문화가 10년 이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였다(고창훈, 2007).

최근 해녀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제주해녀의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해녀노래, 해녀투쟁에 관한 연구(문숙희, 2005; 조규익, 2005; 변성규; 2006; 박찬식, 2007; 이성훈; 2008)가 증가 되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12월 제주 10대 문화상징물로서 선정이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지역의 해녀를 문화관광자원화로 보전시킬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관광학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에 착안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느끼고 있는 제주 해녀문화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선택속성 수준을 규명하고자 한다. 해녀 관광자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에 제주해녀 선택속성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이들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관광자원화 선택속성에 대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인지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해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했을 때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영향인식에 대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규명하고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유산

1) 문화유산의 개념

문화유산의 개념에서 유산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적으로 보존되어 상품

화된 것들을 의미하거나, 상품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것들을 재현하는 것(Ashworth, 1994; Masser, Svidcen, & Wegner, 1994; Newby, 1994; Graham, 1994; Herbert, 1995; Schouten, 1995; Poria, 2001)을 말한다. 문화유산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가치 및 요구사항에 연결된 과정의 결과이다. 현재의 경향은 물리적 문화유산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의 활동과 성취를 기록한 모든 표정을 담은 폭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유산에 대한 관심은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주된 사회의 변화로 인한 훼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Jokilehto, 1999). 이렇듯 예술작품과 기념물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문화유산 개념이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의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산물로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ICOMOS,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문화재(문화유산)를 ‘cultural heritage’라고 쓰는 반면 중국에서는 ‘文物’,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화재(cultural proper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황평우, 2004).

사전적 의미로 ‘property’는 재산, 소유물, 성질, 특성 등으로 정의되는데 비해 ‘heritage’는 상속재산, 유산, 전통 등으로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산가치가 있는 재물을 뜻하는 용어에 가깝다. 따라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유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정민섭 · 박선희, 2006).

2) 문화유산관광(Heritage Tourism)

문화유산은 인간의 문화적 행위결과에 의하여 획득되고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자료를 총칭하며 특정 문화집단의 삶에 대한 지혜가 함축된 공동유산으로서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예술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전통적 사고방식, 생활습관, 의식, 민속, 예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전명숙, 2005).

유산관광은 Garrod & Fyall(2000)이 “Managing heritage tourism”이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유산관광에 대한 개념을 Poria 등(2001)이 반박하고 또다시 Garrod & Fyall(2001)이 이에 대해 반론을 펴면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숙영·김사현(2007)의 연구에서 유산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산관광이란 역사성에 중점을 두어 유물(유적)이나 이를 연계시킨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점과 둘째, 개인(소비자)의 주관적 지각에 중점을 두어 스스로 ‘유산’이라고 인지하는 대상을 관람·감상하는 행위라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전자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는 이들 양자 즉, 역사성(공급 측면)과 개인 지각 측면(수요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Poria 등이 “진정한” 유산관광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느 한쪽, 예컨대 수요측면을 내세우는 정의는 마케팅 기획가 혹은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하는 경영자에게 도움될 수도 있지만, 일방향성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유산관광은 그 고유의 성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이란 지역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경관, 지역의 볼거리, 대상, 사람, 이벤트,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방문객의 거주지로부터 목적지인 관광지로 방문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유산관광의 형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중의 하나는 교육적인 요소이다(이주희·문종태, 2002). 즉, 이 경우에 있어서 관광객은 배우고 보고 체험하기를 기대하며, 에듀테인먼트의 복합적인 경험

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문화유산지역을 방문한다(조계중, 2007).

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2003년 유네스코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협약)은 현재 46개국이 조인하여 협약 발효 30개국을 넘어섬에 따라 2006년 6월 파리본부에서 제1회 협약국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ICH협약 제2조(정의)에 의거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관습, 재현, 표현, 지식 및 기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무형문화유산의 구성 정의

구분	내용
무형적 표현과 지식	관습, 의례, 축제, 표현(공연예술뿐 아니라 공예품 ¹⁾ 포함), 지식, 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물건	도구, 사물 등
무형유산의 실현장소	문화공간

1) 여기서 공예품이라 하면 공연예술품을 의미하는데, 정수진(2009)의 “무형문화재의 관광자원화와 포클로리즘”에서 제시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사당 풍물놀이를 예들 들어 문화상품으로서 남사당을 ‘공연’한다는 것은 예능 이외에 연기 기술, 공연 기술 등을 필요로 하기에 기술을 뺐내는 작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가 이야기가가 되는 ‘공연예술품’이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의에 따라 ICH협약은 모두 5개의 무형유산 범주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비 전통 및 표현, 둘째, 공연 예술, 셋째, 자연과 우주에 관한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넷째,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지막으로 전통 기술을 말하고 있다.

ICH협약에 의한 무형유산 정의는 한 마디로 현행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된 정의를 넘어선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속자료”에 대해서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적 개념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지니고 있지 않고 있다. 단지 제2조 3항에 의거 별도의 보호구역²⁾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유형문화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무형문화재와 직접 연결되어 시도된 바가 없다.

판소리, 종묘제례와 같이 기존 등재된 우리의 무형문화재와 달리 해녀문화는 의식주 생활과 민간신앙, 풍습, 기술, 장소적 개념을 다 함께 포괄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ICH협약의 제1, 2, 3항의 모든 조항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허권, 2007).

또한 위의 문화유산의 개념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해녀를 문화재라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는 개념보다는 무형문화유산을 써야 한다고 사료되며, 유네스코가 새로 제정한 세계무형문화보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유형문화위주의 문화개념에서 무형문화유산도 유형문화유산만큼 소중한 인류의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점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유형문화유산 정책의 영향력과 주도권이 서구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영향력과 주도권은 비서구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세 번에 걸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나라가 모두 90개국, 이중 서유럽의 것은 6개뿐이고, 아시아지역은 26개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분포를 보더라도 아시아 지역이 무형문화유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임돈희, 2007).

그리고,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변적 창조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혁신적 개념을 몇 가지 제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들고 있는 3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 무형유산을 최종 생산물이라기보다는 과정과 실행으로서 고려한다.

둘째, 무형유산을 정체성, 창작성, 다양성 및 사회적 유대의 근원으로 인식한다. 셋째, 지속적인 진화, 창의적 특성 및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유산의 특이성을 존중한다(박성용, 2006).

무형문화는 최종 생산물로서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실현되는 가변적 실체이자, 일정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사회적 유대 속에서 창작성을 다양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창의적 특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임재해, 2007).

2. 해녀

해녀란 바다에서 수면 공기공급장치나 스쿠버장비 등의 호흡장치없이 해삼,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성 잠수작업자를 지칭하며 잠수형태로는 지식잠수(止息潛水, breath hold diving)가 있다. 지식잠수란 흡기 후 수분 동안 숨을 참고 잠수작업을 한 후 수면으로 상승하는 잠수를 말한다(안재현, 20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48호(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09. 11. 4)에 의하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해녀’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인한 제주여성의 표상인 해녀는 요즘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바다에서 하는 힘든 노동을 기피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시키지 않는 것도 해녀 격감 및 고령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 수 감소와 함께 어업종사자도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해녀 5,650명(2003년 말 기준) 중 60세 이상이 58.7%(3,136명)로 가장 많고, 50~59세 29.9%(1,688명), 30~49세 14.6%(824명) 순이며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70년 전체 해녀 1만 4,143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4.6%였던 것과 비교할 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다. 더불어 해녀 수의 격감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잠수어업인 현황

구분	1980	1990	1995	2003	2005	2009	
잠수 어업인 수(%)	7,804(100)	6,470(100)	5,886(100)	5,650(100)	5,545(100)	5,095(100)	
연령 구성	30세미만	782(10.1)	271(4.2)	20(0.4)	2(0.03)	-	-
	30~49세	4,788(61.4)	2,894(44.8)	1,843(31.4)	824(14.6)	718(12.9)	213(4.1)
	50~59세	1,698(21.7)	2,370(36.6)	2,247(38.1)	1,688(29.9)	1,512(27.3)	1,043(20.5)
	60세이상	536(6.8)	935(14.4)	1,776(30.1)	3,136(55.5)	3,315(59.8)	3,839(75.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의 <2009 해양수산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6년 말 도내 해녀 수는 5,650여명으로 지난 1980년 7,804명보다 2,000여명이 넘게 줄어들면서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매해 100여명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득을 보면 1인당 320만원에 불과, 13년 전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을 했듯이, 제주해녀를 바탕으로 관광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된 것이 없어서 문화 관광자원의 선택속성 인식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연구에서는 Haahti(1986)와 Carlson(1976)과 Bojanic(1991)은 관광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선택속성 인식이 역사, 문화적인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계섭(1993)은 경험 및 교육성, 역사 및 문화적 특성, 향토성, 민속성, 환상성 및 진기성, 특이성 등의 문화적 속성을 언급하였으며, 신찬혁(1995)은 시설내용의 교육적인 면을, 이장주(1997)는 향토성, 전통성, 체험성, 교육성 등을 측정항목으로 들고 있다. 또한 이애주(1989)와 박미정(1998)도 문화유적 및 문화적, 역사적 흥밋거리를 매력속성으로 보고 있다. 김계섭·안윤지(2005)는 고유성, 교육성, 진정성, 신기성을 측

정향목으로 하여 자원해설이 관광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다.

〈표 3〉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선택속성 요인 내용
외국 학자	Carlson(1976)	관광자를 유인하는 선택속성 인식이 역사, 문화적인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음
	Haahti(1986)	
	Bojanic(1991)	
국내 학자	이재주(1989)	문화유적 및 문화적, 역사적 흥밋거리
	김계섭(1993)	경험 및 교육성, 역사 및 문화적 특성, 향토성, 민속성, 환상성 및 진기성, 특이성 등의 문화적 속성
	신찬혁(1995)	시설내용의 교육적인 면
	이장주(1997)	향토성, 전통성, 체험성, 교육성 등
	박미정(1998)	문화유적 및 문화적, 역사적 흥밋거리
	김계섭·안윤지(2005)	고유성, 교육성, 진정성, 신기성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해녀의 선택속성 측정항목 19개를 도출하여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3. 관광자원화

문화적, 역사적인 유산이 관광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장지향적인 상품이나 경험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Ashworth, 1994; 한숙영, 2007). 즉, 문화적 가치나 미적 기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마케팅 관점에서의 시장의 간여를 통하여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자

원적인 대상이나 유산의 동시대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조된 상품이거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Mirloup, 1984; Ashworth, 1994).

그 외에도 상당수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문화적 소비내지는 문화자본의 형태로 변환된 상품적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Cazes, 1992; Tinard, 1988; Goeldner & Ritchie, 2003). 또한 관광자원화나 상품화는 일련의 문화적 유산이나 역사적 유·무형의 사실들을 적절한 사회·교육적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일열,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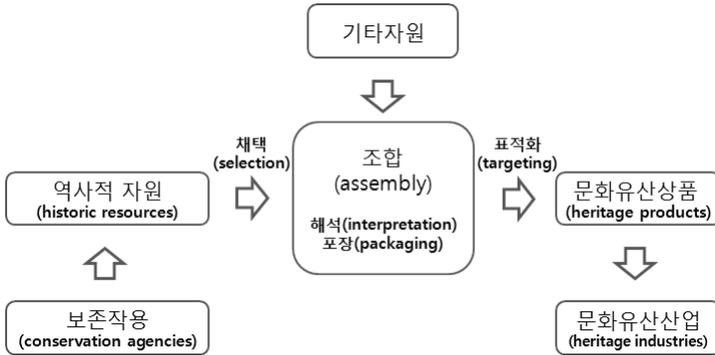
이렇듯 문화유산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단지 관광자원화에 관련된 상품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광의적 의미에서 관광객, 지역주민 등의 정신적 중심체이자 공공재적 가치의 측면도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문화관광상품의 경우, 유무형의 문화재, 역사적 건조물, 전통축제 등이 이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적 맥락이 아닌 지방적 맥락에서 역사문화자원이 관광상품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관광상품화된 것은 소비자, 즉 관광객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광지의 역사문화자원들을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소비하기 위해 시장에 제공되어 관광객들이 해당 자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장소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모두 역사문화관광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문화자원이 역사문화관광상품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턴브리지 등(Tunbridge and Ashworth, 1996: 6-7)은 과거의 사건, 인공물, 특성이 현대의 소비를 위해 고의적으로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보존작용, 역사적 자원, 채택, 조합, 표적화, 문화유산상품, 문화유산산업의 상품화과

정을 거친다고 하였다(이소영, 2005. 재인용).



[그림 1]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과정

출처: 이소영(2005), 지역문화관광 상품화 과정의 문화매개집단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4. 관광영향 인식

관광영향은 관광개발 혹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따른 유·무형의 제효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인식이 곧 지역주민들의 인식 혹은 지각이라 할 수 있다(고동완, 2001). 관광영향과 이에 대한 지각은 보통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구분은 인위적이고 종종 서로 중복되기도 한다(조광익·김남조, 2002; Ap & Crompton, 1998). 그렇지만, 초기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제효과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세를 알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것이 많고 오늘날에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효과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관광자원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분들 예를 들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정도를 측정하는 항목들 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척도를 중심으로 평균값 이상과 이하에 대한 해석과 관광으로 인한 영향력 해석 간의 중복도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지각연구(김남조, 2001; 고동완, 2001; 조명환 · 장희정, 2005; Brunt & Courtney, 1999; Tomljenovic & Faulkner, 2000; Tosun, 2002 등)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각연구(Carmicheal, 2000; Yoon, Gursoy & Chen, 2001 등)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관광개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ndberg & Johnson, 1997; Akis, Perstianis, Warner, 1996; Lankford, 1994),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Liu & Var, 1986).

〈표 4〉 영향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내용
외국 학자	Liu & Var(1986)	문화관광개발이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부정적, 긍정적으로 인식
	Akis, Perstianis, Warner(1996)	
	Lindberg & Johnson(1997)	
	Lankford(1994)	문화관광개발은 지역사회에 영향관계가 있음
	Brunt & Courtney(1999)	관광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연구
	Tomljenovic & Faulkner(2000)	
	Tosun(2002)	
	Carmicheal(2000)	
	Yoon, Gursoy & Chen(2001)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각연구
국내 학자	김남조(2001)	관광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연구
	고동완(2001)	
	조명환 · 장희정(2005)	

이들의 연구에서 관광으로 인한 효과 및 영향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의 전체 또는 일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관광영향측정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광영향에 관한 17개 항목을 도출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관광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에서는 문화자원 선택속성, 관광자원화 영향인식에 대한 연구의 표본과 연구목적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제주 시·서귀포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한 4개 문항과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과 관련한 19개 문항과 영향인식과 관련한 17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예산 및 조사기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간과 조사의 편리성이 강조되는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과 빈도분석,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공받고자 기술분석,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내용을 교육받은 총 6명의 조사원이 2008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 간 제주해녀를 알고 있거나 해녀문화체험을 경험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

상으로 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사료되는 제주시 지역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시 지역인 서귀포월드컵경기장, 해녀공연을 하고 있는 성산 일출봉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2부(94%)가 회수되었으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3부를 제외하고 279명의 유효 표본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38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141명으로 나머지 50.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은 3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표본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8	49.5	응답자 유형	관광객	148	53.0
	여	141	50.5		지역주민	131	47.0
연령	20대	106	38.0	정보원천	방송/신문/잡지	143	51.3
	30대	89	31.9		가족/친지/친구	63	22.6
	40대	62	22.2		인터넷	16	5.7
	50대 이상	22	7.9		관광팝플렛	11	3.9
기타					46	16.5	
결혼여부	미혼	138	49.5	총계		279	100
	기혼	141	50.5				

다음으로 30대 89명(31.9%), 40대 62명(22.2%), 50대 이상이 22명(7.9%)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중 기혼이 141명(50.5%)이 미혼 138명(49.5%)보다 많으며, 끝으로 조사자 유형으로는 관광객이 148명(53.0%)으로 지역주민 131명(47.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원천에 대한 응답으로는 방송/신문/잡지를 통해 접한다가 143명(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족/친지/친구가 63명(22.6%), 인터넷이 16명(5.7%), 관광팸플렛이 11명(3.9%), 기타가 46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았을 때, 사라져 가는 해녀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0-30대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해녀에 대한 기사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측정척도의 평가

1)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채택된 요인 중 요인부하량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녀 선택속성 요인1은 보전적 가치, 지역문화적 가치, 희소적 가치, 계승필요, 매력적, 역사적, 자원적 문항을 “고유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정보적, 체험적, 해녀접근용이, 상품적, 현장감, 환대적, 서비스적, 활동적 문항을 “접근성”이라 요인명으로 정하였다.

요인3은 이국적, 교육적 문항을 “교육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4는 대표적, 지방적 문항을 “향토성”이라는 요인명을 정하였다.

〈표 6〉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공통성	요인 적재량	문항 제거시 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계수
고유성	보전적 가치	.715	.829	.845	6.614 (34.812)	.877
	지역문화적 가치	.701	.795	.849		
	희소적 가치	.656	.751	.853		
	계승필요	.530	.706	.864		
	매력적	.525	.665	.868		
	역사적	.474	.660	.869		
	자원적	.653	.651	.865		
접근성	정보적	.682	.788	.811	2.766 (14.558)	.842
	체험적	.483	.673	.823		
	해녀접근용이	.600	.671	.834		
	상품적	.576	.642	.819		
	현장감	.562	.619	.831		
	환대적	.675	.606	.818		
	서비스적	.695	.588	.821		
교육성	이국적	.748	.808	-	1.115 (5.870)	.575
	교육적	.559	.501	-		
향토성	대표적	.640	.666	-	1.023 (5.385)	.600
	지방적	.621	.635	-		
타당성 검증	KMO: .896, Bartlett의 구형성: 2307.527(p=.000) 전체설명력: 60.625, 전체 Cronbach's α : .891					

2) 관광객, 주민 간 제주해녀 선택속성차이

응답자별 차이분석을 보면 ‘해녀에게 접근이 용이하다’와 ‘대표성을 띠고 있다’, ‘지방적이다’, ‘보전적이다’, ‘희소적이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제주해녀를 선택하고 있

는 항목 중 제주하면 떠오르는 관광자원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해녀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가치가 높고 계승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관광자원화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해녀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질문사항에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 평균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낮은 값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모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녀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 응답자 유형별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 항목별 평균 순위 및 영향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인식차이 면에서 관광객은 ‘지역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높았으며 지역주민은 ‘제주해녀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높게 응답률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표 7>의 순위형성을 살펴보면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순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응답자 유형별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 항목별 평균 순위 분석 및 차이분석

항 목	관광객(n=148)		지역주민(n=131)		t값	유의확률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역사적	3.8378	6	3.6947	5	1.462	.145
계승 필요	4.0203	4	3.8473	1	1.714	.088
활동적	2.9324	14	2.9313	14	.010	.992
해녀접근용이	2.4054	19	2.7328	16	-2.778	.006**
대표적	3.7297	7	3.2137	10	4.379	.000***
지방적	4.0946	2	3.7786	4	3.106	.002**
지역문화적 가치	4.1959	1	3.8321	2	3.454	.001**
체험적	2.7905	15	2.7939	15	-.024	.981
상품적	3.0338	13	3.0153	13	.143	.886
정보적	2.7162	16	2.6489	18	.541	.589
현장감	3.3649	10	3.2443	9	.975	.330
자원적	3.5608	9	3.3740	8	1.493	.137
보전적 가치	4.0405	3	3.7863	3	2.298	.022*
매력적	3.5878	8	3.4046	7	1.561	.120
희소적 가치	3.9392	5	3.4885	6	3.909	.000***
서비스적	2.5743	18	2.5802	19	-.050	.960
환대적	2.7027	17	2.7023	17	.004	.997
이국적	3.2432	11	3.1527	11	.702	.483
교육적	3.1757	12	3.1145	12	.524	.601

*p< 0.05, **p<0.01, ***p<0.001

이는 평균값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통계적 속성 중 성별에 의한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육성과 향토성 요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표 8〉 성별에 따른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 차이분석

요인명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고유성	남성	138	3.7277	.77132	-.883	.378
	여성	141	3.8024	.63261		
접근성	남성	138	2.8179	.71674	-.110	.913
	여성	141	2.8271	.68067		
교육성	남성	138	3.0580	.87977	-2.247	.025*
	여성	141	3.2872	.82426		
향토성	남성	138	3.6051	.87431	-2.337	.020*
	여성	141	3.8262	.69433		

*p< 0.05, **p<0.01, ***p<0.001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에 해녀문화자원 선택속성 차이검증 결과치를 보면 고유성과 향토성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지역주민보다는 관광객이 제주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에 대해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육지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제주지역 만의 매력적이고 대표적인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으로 부각시켜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9〉 유형별에 따른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 차이분석

요인명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고유성	관광객	148	3.8832	.63975	3.010	.003**
	지역주민	131	3.6325	.75135		
접근성	관광객	148	2.8150	.72132	-.192	.848
	지역주민	131	2.8311	.67224		
교육성	관광객	148	3.2095	.84719	.736	.462
	지역주민	131	3.1336	.87227		
향토성	관광객	148	3.9122	.70401	4.512	.000***
	지역주민	131	3.4962	.83550		

*p< 0.05, **p<0.01, ***p<0.001

연령에 따른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을 살펴본 결과치로는 향토성요인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한 20대부터 40대까지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에 있어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될 수 있다.

〈표 10〉 연령에 따른 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 차이분석

요인명	연령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고유성	20대	106	3.8949	.59191	.113
	30대	89	3.6870	.73820	
	40대	62	3.7051	.69113	
	50대 이상	22	3.6299	1.00210	
접근성	20대	106	2.9611	.72238	.077
	30대	89	2.7444	.60827	
	40대	62	2.7198	.65899	
	50대 이상	22	2.7614	.92816	
교육성	20대	106	3.2500	.84021	.394
	30대	89	3.2079	.91642	
	40대	62	3.0323	.77814	
	50대 이상	22	3.0682	.91672	
향토성	20대	106	3.8443(a)	.74439	.019*
	30대	89	3.7079(a)	.79704	
	40대	62	3.6694(a)	.79930	
	50대 이상	22	3.2727(b)	.88273	

주1) *p< 0.05, **p<0.01, ***p<0.001

주2) 사후검정은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이용함(a>b의 각 부집단 형성은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유형별 해녀문화 선택속성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에 비해 지역주민이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값이 중앙값 이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응답자 유형별 인지도 차이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인지도	관광객	148	2.6284	.93518	-2.490	.013*
	지역주민	131	2.9313	1.09678		

*p< 0.05, **p<0.01, ***p<0.001

다음으로 유형별 제주해녀가 관광자원화가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인식을 나타내는 질문에 대한 결과치는 <표 12>와 같다. 관광객은 “제주해녀가 제주문화를 대표하게 된다”는 항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제주해녀의 가치를 계승하게 된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반면 지역주민은 “지역홍보에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응답을 가장 높게 채택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관광객이 가장 높게 채택한 “제주문화를 대표하게 된다”라는 응답을 취하였다.

가장 낮게 채택이 된 문항으로는 “고용창출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응답이었는데 이는 제주해녀가 문화관광자원화가 되었다하더라도 고용창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비취진 것이라 사료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응답자 유형별 해녀 관광자원화 영향인식차이분석 및 평균 순위

유형		N	평균(순위)	표준편차	t값	유의 확률
제주해녀의 소득증대에 기여	관광객	148	3.8041(8)	.79675	2.598	.010*
	지역주민	131	3.5420(7)	.88804		
지역경제에 기여	관광객	148	3.7568(10)	.77916	3.374	.001**
	지역주민	131	3.4122(11)	.91037		
고용창출을 유발	관광객	148	3.4257(17)	.86576	2.594	.010*
	지역주민	131	3.1374(17)	.99044		
제주해녀의 가치를 계승	관광객	148	3.9932(2)	.73305	3.263	.001**
	지역주민	131	3.6489(4)	.99169		
제주문화를 대표	관광객	148	4.0878(1)	.79050	3.445	.001**
	지역주민	131	3.7099(2)	1.01139		
관광객 방문을 촉진	관광객	148	3.6554(13)	.83064	2.668	.008**
	지역주민	131	3.3664(14)	.97827		
제주해녀 간 상호협력	관광객	148	3.6081(14)	.76162	2.468	.014*
	지역주민	131	3.3511(15)	.95211		
제주해녀의 보존	관광객	148	3.9392(4)	.75796	2.287	.023*
	지역주민	131	3.7099(2)	.89862		
지역사회에 자부심 부여	관광객	148	3.8243(6)	.82244	3.024	.003**
	지역주민	131	3.5038(10)	.94766		
지역홍보에 도움을 제공	관광객	148	3.9527(3)	.76784	2.393	.017*
	지역주민	131	3.7176(1)	.86179		
제주해녀의 매력을 드높임	관광객	148	3.8176(7)	.84142	2.035	.043*
	지역주민	131	3.5878(6)	1.02184		
관련 문화유산에 관심	관광객	148	3.7770(9)	.84773	2.487	.013*
	지역주민	131	3.5038(9)	.97171		
관광객의 만족을 증대	관광객	148	3.6081(14)	.78796	1.983	.048*
	지역주민	131	3.4046(12)	.92635		
지역 지명도를 끌어올림	관광객	148	3.8581(5)	.79975	3.008	.003**
	지역주민	131	3.5420(7)	.93857		
제주 문화관광정책에 영향	관광객	148	3.7432(11)	.86600	3.718	.000***
	지역주민	131	3.3511(15)	.89377		

*p< 0.05, **p<0.01 ***p<0.001

V. 결 론

본 연구는 앞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통해 제주해녀가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고 해녀를 문화관광 자원화가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및 현재의 여건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해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해녀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 “희소성 가치가 높다”가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 “지방적이다”, “해녀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보존 가치가 높다”, “계승할 필요가 있다”순으로 나왔다. 성별에 따른 제주해녀 문화자원 선택속성에 있어서 교육성과 향토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유형별에 따라서는 고유성과 향토성, 연령대별로는 향토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세분화전략을 통해 앞으로 제주해녀를 보존, 보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찾아나가야 하며, 해녀에 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선택속성 및 영향인식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현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 및 시사점으로 첫째, 제주해녀를 제주의 역사와 연관시킨 대하드라마를 통하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제주도의 문화와 자연을 전 세계에 알릴 뿐더러 제주해녀 현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영상산업의 근간을 만드는 정책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양문명사적 관점에서 제주해녀의 자존심과 당당함을 브랜드화하여 문화자원 선택속성 창조와 문화제주의 교육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로는 전통문화의 체험의 장 지정과 조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해녀공연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관람장소와 체험

장소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지역별이나 주제별 등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제공한다면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들에게도 매우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등장할 것이다.

셋째, 제주해녀 관광상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실증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식도가 낮은 점을 보았을 때, 제주해녀를 제대로 해설할 수 있는 관광안내원의 양성이 필요하고, 제주해녀공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전문가의 양성, 다수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체험교습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이에 따른 해녀체험관광상품의 품질보증제 도입을 통해 향후 지나친 상업적 논리에 의하여 제주해녀문화가 지니고 있는 전통성과 고유성이 쉽게 상실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미나,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연구기관 설립,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 해녀의 날 지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548호, 2009), 해녀관련상품 박람회, 해녀축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제주해녀를 잘 알 수 있는 방안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는 원윤희(2002)가 말한 현재 제주해녀의 관람형 전통문화관광상품에서 벗어나 체험하여 느끼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 관광객이 이질적인 문화인 전통문화에 일시적으로 동화되어 볼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는 가상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체험형 관광상품개발이 더욱더 필요로 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는 전통문화를 소멸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여기에는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가 포함)하

며, 위원회의 설치 등(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48호, 2009) 제주해녀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관광자원 상품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관광자원화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관광자원화가 명확한 역할분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원형보존이라는 낡은 이상을 버리고, 창조적 복원이나 현재화된 계승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은 탈맥락화 상황의 가짜원형 복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계승을 겨냥하며 현실문화와 함께 하는 문화적 전승력을 살려내는 것이 바람직하다(임재해, 2007).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해녀의 문화관광자원화의 효과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보다는 높은 평균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제주해녀의 우수성, 역사성, 체험적인 요소를 가미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제주해녀의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해녀자체에 대한 주체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졌을 뿐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해녀문화자원 선택속성, 관광자원화 필요성, 효과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조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대상 연령이 20대로 편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연구의 대표성을 띠다고 할 수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을 세분화하고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을 보다 균등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장소에 있어서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다 연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직접적으로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샘플 수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해녀를 체험한 집단과 체험하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줄 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동원(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고창훈(2004). 「세계평화섬 발전전략으로서 제주평화화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연구」, 『동아시아논총』, 88-89.
- _____(2007).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해녀가치의 보존 전승」, 『잡너기획세미나』, 45.
- 김계섭·안윤지(2005). 「문화관광자원의 매력속성, 자원해설, 관광만족간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19(1), 247-272.
- 김남조(2001).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태도, 기대행위 차이」, 『관광학연구』, 25(3), 43-62.
- 류인평(2007). 「지역주민의 지역관광개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1), 61-81.
- 박석희·이미혜(1996). 「전통민속놀이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0(1), 177-197.
- 박성용(2006).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뉴스 5월 10일, 6.
- 박숙진(2004).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301-303.
- 박찬식(2007).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Vol(30), 39-68.
- 안미정(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 153-193.
- 안재현(2008). 「동해안 해녀들의 잠수관련 이과적 증상 및 소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
- 원용희(2002). 「한국전통문화의 체험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Vol.16, 51-63.
- 이소영(2005). 「지역문화관광 상품화 과정의 문화매개집단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1-22.
- 이주희·문종태(2002). 「국립공원에서의 역사문화해설체험효과」,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1), 73-82.

- 이창언(1998).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민족문화논총』, 337-355.
- 임돈희(2007).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잠녀기회’세미나, 16.
- 임재해(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237-285.
- 정민섭 · 박선희(2006).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향에 관한 연구』, 『컨벤션연구』, 6(3), 29-50.
- 조계중(2007).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만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1(2), 1-9.
- 조광익 · 김남조(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조구현(2004). 『노인복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6(2), 191-211.
- 조명환 · 장희정(2005).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관광 · 레저연구』, 17(1), 133-154.
- 지봉구 · 박호표(2007). 『공무원과 관광인식 차이분석』, 『관광연구저널』, 21(1), 227-240.
- 진영재(2005). 『지역 문화유산자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해설의 필요성』,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2(3), 21-25.
-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548호
- 한숙영 · 김사헌(2007). 『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관하여』, 『관광학연구』, 31(3), 209-223.
- 허권(2007).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등재 가능성』, 제민일보사주최, 4월 14일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시청각실 ‘잠녀기회’세미나, 87-88.
- Akis, S., Perstianis N., & Warner, J.(1996). “Residents’ attitude to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Cyprus”. *Tourism Management*, 17(7), 481-494.
- Ap, J., & Crompton, J. L.(1998). “Developing and testing a tourism impac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1), 47-50.
- Ashworth, G. H.(1994). From history to heritage—from heritage to identity. In Ashworth, G. J. & Larkham, P. J.(Eds.). *Building a New Heritage*, 13-30. London; Routledge.
- Brunt, Paul., & Courtney, Paul.(1999). “Host perceptions of sociocultural

-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3), 493-515.
- Carmichael, B. A.(2000). "A matrix model for resident attitudes and behaviors in a rapidly changing tourist area". *Tourism Management*, 21(6), 601-611.
- Cohen, Erik(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 Garrod, B. & Fyall, A.(2000). "Managing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1), 55-69.
- _____ (2001). "Heritage tourism; a question of defini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682-708.
- G. J. & Larkham, P. J.(Eds.). *Building a New Heritage*, 206-228. London: Routledge.
- Graham, B. J.(1994). Heritage conservation and revisionist nationalism in Ireland. In Ashworth, G. J. & Larkham, P. J.(Eds.). *Building a New Heritage*, 135-158. London: Routledge.
- Gunn, Clare A.(1988). *Tourism Planning*, new-York: Crane, Russak & Company, Inc.
- Herbert, D. T.(1995). *Heritage places, leisure, and tourism*. In Herbert, D. T.(Ed.), *Heritage, Tourism and society*, 1-20.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 Keller, K. L.(1998). *Strategic Brand Management: Building, Measuring and Managing Brand Equity*. Upper Saddle River, NJ:Prentice Hall Inc.
- Lankford, S. V.(1994).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1), 122-126.
- Lindberg, K., & Johnson, R. L.(1997). "Modeling residen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1), 122-126.
- Liu, J. C., & Var, T.(1986).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402-424.
- Masser, L. O. Sviden, & M. Wegner.(1994). What new heritage for which new Europe? Some contextual considerations. In Ashworth, G. J. & Larkham, P. J.(Eds.). *Building a New Heritage*, 31-46. London;

Routledge.

- Newby, P. T.(1994). Tourism : support of threat to heritage? In Ashworth, Poria, Y.(2001). "The show must go on".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 115-119.
- Poria, Y., Butler, R., & Airey, D.(2001). "Clarifying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1047-1049.
- Schouten, F. J.(1995). Heritage as historic reality. In Herbert, D. T.(Ed.), *Heritage, Tourism and society*, 21-31.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 Samantha, S.(2001). A Historical Study on the Preparation of the 1989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Peter, S. ed.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s: A Global Assessment*. UNESCO and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42-56.
- Yoon, Y. S., Gursoy, D., & Chen, J. S.(2001). "Validating a tourism development theory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urism Management*, 22(4), 363-372.

<http://www.jeju.go.kr>

Abstract

A Study on Differences of Selection Attributes & Perceptions
between Residents and Travelers regarding Woman Divers as the
Cultural Heritage in Jeju

Hyun, Hong-Jun* · Suh, Yong-Kun** · Ko, Kye-Sung***

The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s and tourists' perceptions on the woman divers known as Haeyeo,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the cultural heritage and regional icon. in Jeju island. Their numbers has declined but their value has increased as of one of the major cultural heritages to preserve originality.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s and tourists, the 19 attributes were applied, and a total of 279 respondents are required to rate the perception for each attribute.

Findings indicated that woman divers would be the best icon of cultural heritage and valuable asset for Jeju island. They also have very unique value for preservation to both tourists and residents. To be continue this, several things, including fund, facilities, programs for tourism and education for woman divers should be supported. Even though survey methods and used attributes may be a limitation of this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hongjun2@jejunu.ac.kr

** (Corresponding Author)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yong@jejunu.ac.kr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Studies,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wegotravel@kyungnam.ac.kr

study, this result of the paper might assist tourism policy for woman divers' preservation to be the sustainable asset.

교신 : 서용건 690-756 제주시 아라 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E-mail : yong@jejunu.ac.kr 전화 : 064-754-3138)

논문투고일 2010. 05. 27.

심사완료일 2010. 07. 10.

게재확정일 2010. 07. 30.